



## 헌신

1023. 아쉬운 부분이 보이면 그대가 채워 넣으십시오. 그저 말로 끝나버리는 비판들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우십시오.

우리의 삶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낌 없이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사랑으로 부서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1024. 알고 있습니까? 관상 생활의 풍요로움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대 존재 전체를 송두리째 내어 놓으십시오.

오직 이렇게 살아갈 때 한계에 다다른 삶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 없는 사랑, 이 사랑의 척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갈 뿐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향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실한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언하십시오.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쉬지않고 끊임 없이 증언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끝까지 충실한 증인들, 사랑의 요구에 끝까지 몸 바치는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1025.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의탁할 때, 신비스럽게도 엄청난 반향을 세상에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이 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대가 철저히 의탁하고 내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 침묵과 언어, 그대의 미소와 갈망, 그대의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1026. 올해는 그대에게 결정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그대와 삶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서로 삶을 주고 받으십시오. 그대는 얼마만큼 내어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는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1027. 생명과 열정, 사랑의 파종자가 되십시오. 일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지 말고 그대 안에 간직되어

있는 위대한 신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모두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대의 기쁨을 모두에게 전염시키십시오.

1028. 모두에게 더 많이 내어주고 그대 자신은 덜 생각하십시오.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그대는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도둑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도둑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29. “주님 저를 온전히 받아 주십시오…”(성이나시오). 저의 무능, 나약함, 넘어짐, 비참… 이 모두를 받아 주십시오.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제게는 이런 것들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것을 원하신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저는 당신의 것을 원합니다. 저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030. 하느님께 이르기까지 늘 앞으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완전히 비어지고 영원한 고요가 감도는

그 영역에 닿기까지, 오직 진리 만이 남게 되는 저 신비스런 영역의 경계선에 다다르기 까지...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신비스런 침묵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항상 전진하십시오.

1031.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심도 깊은 신학적 삶으로 그대의 영성을 강화시키십시오. 그대 의지를 굳건히 하고 용감하게 그대를 내어 주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고삐를 늦추지도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1032. 그대의 여정은 절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늘 섬기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절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드리신 그분처럼 사십시오.

항상 섬기는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효경

의 신비를 그대 안에 깊이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성자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1033. “나는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19:22). 이는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사람들에게 먹히는 밀떡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1034. 희생이 따르지 않는 봉헌 생활은 의미 없고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희생 정신은 고귀한 행동으로 이끌고, 자기를 잊게 하며, 작은 일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입니다.

희생 정신은 인간적인 계산법을 모르고 저울질 하지 않으며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희생 정신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입술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마

음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1035. 지금은 온전히 내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채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36. 그대는 사람들이 진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1037. 예수님, 제게서 뭘 건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가져가십시오. 제게는 아무 것도 남겨놓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께 먹히는 밀떡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없을 것입니다.

1038. 그대의 협조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

다. 왜 자매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않는지요?  
그대의 삶을 자매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고 동시에  
그들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들이십시오. 그들에게서 오는 빛과 사랑을 받아들이  
십시오.

1039. 결코 자신을 아끼지 말고 그대의 삶과 존재  
의 마지막 숨결까지 내어주십시오. 깊은 일치 안에  
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아 들일 줄도 알아야 합  
니다.

1040. 그대 영혼이 목마름으로 타 들어가면 좋겠  
습니다. 이 목마름은 온전히 내어주고 진실하게 살  
아갈 때에 비로소 가라 앉습니다. 철저함과 충만함  
을 목 말라 하십시오.

1041. 그대는 종종 자신을 아깁니다. 사람들이 청  
하는 것은 주지 않고 반대로 청하지도 않는 것을 자



꾸 주려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대로 내어주지 않고 그대의 욕구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느님은 더 많은 것을 그대에게 원하십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1042.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대의 잣대로 재지 말고 하느님의 잣대로 재십시오. 모두가 그대처럼 강인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이해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1043. 우리 성당에 모셔진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대는 모든 이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대 옆에만 있어도 좀 더 따스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더욱 일치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처럼 모든 이의 문제를 함께 느끼고 모든 이의 신비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44. 원하는 것, 진심으로 원하는 것.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아끼고 원하는 것 보다, 인간이 자신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아끼고 원하는 것 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곧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들레헴과 나자렛을 지나 골고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빵이 되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나누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1045. 사랑하는 것이 “나”입니다. 내어주는 것이 “나”입니다. 내어주는 만큼 “나”가 될 것입니다.

베풀 때 진실한 “나”가 되고, 내어줄 때 성장하며,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의 창고도 늘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내어줄 때 내 영혼의 공간들을 생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해와 용서와 사랑에 열려 있을 때,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자라납니다.

1046. 그대가 조건 없이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온전히 당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항상 기쁘고 겸손하고,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영혼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 용감해 지십시오.

1047. 중요한 것은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내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1048. 그분 앞에서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도록 합시다. 그분께 절대 계산서를 내밀지 않도록 합시다. 손 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그분의 뜻 앞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1049. 그대의 작은 땅이 그 누구의 땅도 아니고 모

든 이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신비가 되십시오. 이는 모든 이의 것이 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신비입니다.

1050.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느님을 위해 창조된 마음은 세상

세상 어디서도 합당한 안식처를 만나지 못합니다.

1051. 침묵 교회의 형제들이 영웅적인 삶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영웅적인 삶, 사랑으로 불타는 삶을 기다립니다.

한 순간도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 무엇에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다그치십니다.

1052. 우리가 아는 하느님은 요구하시는 하느님, 영혼의 마지막 숨결까지 내어놓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힘들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기간은 너무도 짧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시간은 너무도 깁니다.

1053. 처음과 마지막 중 어느 순간이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쉽고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1054. 하느님은 한계에 다다른 삶, 충만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저울질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느님의 몸짓을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55. 지금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심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려

운 시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이는 걱정할 것이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장이 사랑으로 충실하게 박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는 자신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자신은 잊고 교회와 하느님, 형제들을 기억하십시오.

1056. 그리스도는 남김 없이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순교가 있습니다. 이는 침묵 속에,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준다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련한 인생 끝에 빈손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어 주고 사랑으로 부서지는 삶입니다.

1057. 저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사랑에 몸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아

주 조그만 역경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조건 없는 헌신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1058. 그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의 젊음, 넘치는 에너지, 그대의 기도와 침묵, 축성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대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대강 대강 살아서는 안됩니다.

왜 그대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축성된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도 신적입니다.

1059. 다툼과 의심, 불평과 모난 마음을 버리고 모

든 것을 애덕으로 감싸 안는 한계에까지 이르는 삶을 고민하십시오.

그대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신비로운 그분의 발자취는 일치를 이루어내고 분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먹구름을 허락하지 않고 의혹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헌신의 흔적을 남겨 놓습니다.

1060. 저울질 하지 말고 주고 또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아낌 없이 내어 주십시오. 그대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남겨 두지 마십시오. 그대의 저울은 하느님의 저울과 같아야 합니다.

1061. 많은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강한 요구가 따릅니다. 빛에 등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사 그 빛이 그대를 질식시키고 그대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은 때가 있어도 말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전진하다 죽게 되면... 그



대는 행복합니다. 오 복된 죽음이어…! 하느님 모험  
의 희생 제물이여!

잠시도 쉬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 호  
소하십니다. 하느님의 외침을 외면 할 수는 없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는 삶을 부서트리고, 산산 조  
각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험한 여정입니다.

1062. 두려움 없이 사랑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십시  
오. 도중에 무엇을 만날까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 할  
것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청하실 것입니다.

그 뻣뻣한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지할 수 없는 사랑을…: 세상과 지옥과 대  
적할 수 있는 사랑을…

주위를 돌아 보지 말고 두려움 없이 달려가  
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를 기다리십니다. 그분 사랑  
의 순수한 영역 안으로 뛰어 드십시오. 하느님의 열

정을 가지고 달려 가십시오.

1063. 다 떨어진 이 허름한 밀짚 모자가 저의 유일한 꽃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꽃이라곤 이 들꽃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말 좋은 것은 이미 당신께 다 있지 않나요? 저는 당신께 없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